서일학보 The Seoil University Press

Thursday, September 1, 2022 **No.295**

• **발행인** 김영철 • **주간** 고미숙 • **편집장** 이도해 •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90길 28 http://www.seoil.ac.kr/hakbo

총학생회 재선거와 비대위

학교를 위한 노력

우리 대학은 지난 학기 두 번의 총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졌었다. 그 이유는 1차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 된 총학생회 선거율인 30%를 초과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재선거에서도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 대학은 3차 선거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2022년도 우리 대학의 학생 사회를 이끌어가기로 하였다.

1차 선거와 2차 선거의 제38대 총학생회장단 후보는 동일했다. 기호 1번 총학생회장 후보로는 건축과 심진 학생, 부총학생회장 후보로는 건축과 금강웅 학생과 건축과 이민영 학생이 출마하였다. 기호 2번 후보로는 전기공학과 이명호 학생, 부총학생회장 후보로는 홍민영 학생과 나유빈 학생이 출마하였다.

38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기간에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 먼저 1차 선거에 관련한 협약서이다. 이는 모든 후보자는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투표에서 투표율 30%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 주관으로 투표율에 상관없이 표 차이로 당선을 결정하기로 한 협약서를 작성했단 것이다. 양쪽 두 후보 모두 이 협약서에 동의하였으나, 투표율은 7%에 그쳤다. 이에 협약서에 따라 투표 결과 기호 2번 후보단이 득표 차이로 당선되는 것이었지만, 협약서 관련 내용이 학생지원처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선이 무효화 되었다. 당시 선관위 위원장은 책임 사퇴하고 선관위를 새롭게 꾸려 2차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2차 선거 때의 불법 출판물 인쇄 사건이다. 이는 기호 2번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 선관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출판물을 인쇄하여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총학생회장단 선거 시행세칙 제5조 5항(선관위에서 정한 유인물 이외의 선전 유인물은 금지한다)과 제7조 2항(불법 출판물 인쇄 및 배포는 금지한다)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선관위 심의를 개최했다. 선관위 긴급 심의 결과 입후보자 자격 박탈 찬성 18표, 입후보자 자격 박탈 반대 0표, 기권 9표로 제38대 총학생회 선거 기호 2번 후보자에 후보자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 우리 대학 중앙비상대책위원회 포스터

이에 우리 대학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서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을 바라는 수많은 익명의 글이 나오기 시작했고 총학생회 재선거 기간, 후보자들이 실명으로 입장 표명을 위한 글을 올렸다. 기호 2번 후보단은 후보자 탈락 공고 후 에브리타임에 지속해서 올라오는 글을 지켜보며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고자 글을 작성함을 밝혔다.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와 관련한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표명했으나, 학우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셌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대학 학우들의 더 명확한 이해와 확실한 전달을 위해 기호 2번 후보단들과 모든 선거관리위원회가 배양관 가람실에서 모여 기호 2번 후보자의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후보자의 입장 표명 및 질의응답 후에 총 3번의 후보자 자격 박탈 투표를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기호 2번 후보단의 자격이 유지되어 6월 8일 제2차 총학생회장 선거엔 두 명의 후보단이 출마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큰 관심을 모았던 선거에도 투표율은 30%를 넘지 못하여 올해 총학생회 여부는 부결되었다.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공석인 총학생회를 대신하기 위해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총학생회장단이 뽑히기 전까지 총학생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 기구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로는 축제가 있다. 우리 대학의 축제는 원래 총학생회에서 진행하였으나, 이례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자체적인 비영리 기구 축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축제 준비를 위해 힘쓰고 있다. 방학을 불문하고 학교와 학생을 위해 일하며 애쓰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축제 준비위원회는 총학생회를 대신하여 구성된 만큼 학생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

신태희 기자 tlsxogml03@gmail.com



Contents

1면	종합	총학생회 재선거와 비대위
2면	보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간담회
3면	보도	1) 생활 필수 요소인 물의 부족
7면	특집	학생과의 교류의 장, 잔디마당 이벤트
8면	인터뷰	더모스트, 막내동이

알 려 드 립 니 다

- **8월 22일(월) ~ 9월 21일(수)** : 2학기 등록 휴학 신청기간
- **9월 1일(목)** : 2학기 개시일
- **9월 1일(목) ~ 9월 7일(수)** : 2학기 전공 및 교양 수강신청 정정기간

기자 임명
정기자 심은수 (생활가구디자인학과 22학번)
정기자 인지예 (미디어출판학과 22학번)
정기자 김다연 (컴퓨터전자공학과 22학번)
정기자 신태희 (유아교육학과 22학번)
수습기자 윤이담 (미디어출판학과 22학번)

보도기사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간담회

2022년도 하반기는 전면 대면으로 운영

지난 6월 17일, 호천관 소강당실에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학습병행의 지난 운영 규칙 설명 및 변경사항 안내, 주 행정 사항 안내, 부정훈련 사례와 예방법,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 2022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간담회

일학습병행이란 입학 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학비 부담 없이 2년간 기업과 대학을 오가며 현장실무능력, 이론을 학습하며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다. 이는 학습근로자에게 조기 취업 및 교육비 부담 없이 기술 습득과 학위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고숙련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와 함께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우리 대학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학습병행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6월 30일까지 특별조치로 진행되었다. 비대면 훈련 및 컨설팅이 허용되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검진자, 유증상자 등은 출석 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집체 훈련과 대면 컨설팅만 인정된다. 또한 그동안 출석 인정되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검진자, 유증상자 등은 앞으로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이에 다양한 부정 사례도 함께 따라왔다. 출석부 허위 작성 및 관리 소홀 등 출결 부정 사례가 이번 일학습 부정훈련 유형 중 약 40%를 차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이러한 부정 훈련을 언급하며 이러한 부정 훈련에 대한 예방법을 제시했다. 교과목별 학습근로자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평가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훈련비를 받았거나 거짓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 비용을 받음으로 인해 '훈련과정 인정 취소'와 전 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학습기업은 훈련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훈련을 빠짐없이 진행한 후 계획에 따라 평가하고 학습근로자의 학습 진도 및 출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앞의 사례와 같은 부정 훈련을 예방하려 한다.

또한 가장 부정 사례가 많았던 출결 관리는 학습기업에 배치된 비콘(beacon)을 이용한 출결 진행을 필수로 하며, OJT(현장훈련) 수업에 참여하였으나 타당한 사유로 당일 비콘을 입력하지 못한 학습근로자의 경우 다음날까지 출석 입력요청 대장을 작성해야 하기에 공동훈련센터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부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했으며 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공동훈련센터에서 2022년 상반기 때보다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일학습병행 커뮤니티는 기업현장교사, HRD담당자, 학습근로자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와 기업 간의 소통과 자율적인 활동을 활성화하여 OJT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커뮤니티는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하며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활동의 경우에만 비용도 지원한다고 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내용으로 2022년 하반기가 운영되며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간담회는 하반기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도해 기자 dohae1336@gmail.com

기획보도 1

우리 대학 학과 감사 진행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


▲ 감사 진행 중인 대의원회

지난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우리 대학 감사기구인 대의원회에서 2022학년도 1학기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리 대학 회칙 제21조 제10항 및 제26조 제2항, 제3항(대의원회의 학생 자치 기구 감사 권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자치기구의 경리, 사무, 회계 사항에 대한 정기감사(이하 자치기구 감사)를 실행하였으며, 회칙 제26조 제4항(감사 결과의 고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기구 감사 결과를 카카오톡을 이용한 학과 내 단체 대화방에 고시하였다. 수감에 동의한 학과는 총 23개의 학과이며 동아리 연합회 역시 감사의 대상이었다.

학생회비는 학과의 운영과 학과생들의 복지 제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명확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금이다. 그렇기에, 명확한 목적을 가진 기금을 수금한 자는 사용내역이 적합한지 지출 내역을 납부자에게 고시할 의무가 있으며 기금을 납부한 자는 그 기금이 목적과 부합하게 사용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에 감사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학회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학회 및 자치기구는 감사를 위해 지출내용 증빙 및 서류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의원회 감사부 윤민영 부장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부분은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알 권리가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감사를 진행하긴 하지만 저 또한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기분이 듭니다"라고 밝혔다.

이지원 기자 easycircle21@gmail.com

기획보도 2

우리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사업' 선정

새로운 세기를 향한 도약의 발판

우리 대학은 최근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국비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이란 해외 현지에서 어학교육과 직무실습을 병행해 학점을 이수하고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대학 단위 지원프로그램이다. 체제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및 전공 실무능력 배양, 취업역량을 향상하게 시킨다. 이는 자유공모 분야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호주에서 16주간 어학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학교가 직접 학생들을 관리하고 현지 정착 및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에는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자를 비롯해 학과 담당 교수,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 글로벌 현장학습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은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한다면 미래의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한 글로벌 현장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과 담당 교수는 "과거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현재 성공적으로 취업해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잘 따라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전교육을 마치면 8월 말에 출국해 호주 시드니에서 4주간 어학교육을 진행하고 12주간 전공 분야의 실습처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전문 운영기관인 글로벌 취업센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지 관리·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인지예 기자 alsrn896328@gmail.com

심층보도

물의 부족으로 이어지는 세상

함께 물 발자국을 줄여 보자

현저히 줄어드는 강수량은 세상에 물 부족을 가져오게 됐다.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의 세상은 가뭄과 사막화 진행 속에 살게 되었다. 생활 필수 요소인 물 부족에 대한 상황들을 몸소 느끼며 극복해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리즈 순서

1) 생활 필수 요소인 물의 부족
2) 쓰레기로 넘치는 매립지, 쓰레기 대란
3) 지구를 위협하는 이상기후
4)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환경개선 방안

세상에는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이 존재한다.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유엔이 제정, 선포한 날이다. 유엔은 1992년 12월 22일 리우환경회의 의제 21의 18장(수자원의 질과 공급 보호)의 권고를 받아들여 '세계 물의 날 준수(Observance of World Day for Water)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에 따라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이라고 제정, 선포하여 1993년부터 기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전망 2050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23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심각한 물 부족의 고통 속에 살아가리라 예측했다. 강우 유출량을 인구수로 나눠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000㎥ 미만은 물 기근 국가, 1,000㎥ 이상에서 1,700㎥ 미만은 물 부족 국가, 1,700㎥ 이상은 물 풍요 국가로 분류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이 세계 평균 수치보다 높음에도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아 연간 1인당 재생성 가능한 수량을 1,472㎥으로 산정해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며 '물 스트레스 국가'로도 칭한다. 그리고 오는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 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생활 속 필수인 물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다. 하지만 우리는 강, 하천, 저수지, 보 등 수자원 인프라가 세계 최상위권으로 잘 구축되어 웬만한 기후 변화의 충격에도 물 부족이라는 문제를 거의 실감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 2019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295L, 2L 물병을 147개 소비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낭비하는 상황을 일컬을 때 '물 쓰듯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미래에는 이러한 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추세다. 증가하는 인구, 산업화 그리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점점 줄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가 물 부족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류는 위기를 겪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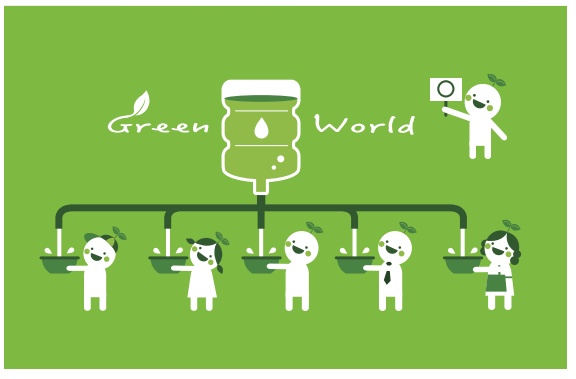


▲ 지구를 위해 물을 절약하자는 포스터 (삼성SDI 공식 블로그 제공)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물의 자연 순환 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지역에 과다 밀집 도시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왜곡도가 심각하다. 또한, 수자원의 계절적·지역적 분포로 인해 물이 불균형하게 공급되고 있다. 댐과 저수지 건설 등을 통해 물 공급량을 확보하고 적절한 물 관리를 통해 수질을 관리하는 것 등을 우선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품을 생산, 사용,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물의 양을 물 발자국(Water Footprint)이라고 말한다. 물 발자국의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용되는 물의 양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에 대비하며 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우리는 물을 아끼기 위해 실생활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세탁할 때 차가운 물을 사용하거나 쌀뜨물로 설거지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샤워 시간을 정해 씻거나 양치를 할 때 컵에 물을 받아 사용하는 등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도희 기자 rpt6ku@gmail.com



학생의 목소리

학보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받는 사람 자산법률학과 김웅 교수님

가르치심에 꼭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성실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히 지내셔서 학교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내는 사람 자산법률학과 21학번 장주석

받는 사람 정보통신공학과 20학번 이지원

너와 같은 중·고등·대학교를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해

– 보내는 사람 생명화학공학과 20학번 길민지



교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학보사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학보에 메시지가 실린 학생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일학보사 인스타그램(@seoil_press)으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받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INTERVIEW

올해 용마문화축제에 기대하는 점은?



▲ 건축과 20학번 이현주

20학번, 코로나 대학 세대의 시작. 대학 축제에 대한 로망은 나의 원동력 중 하나였으나,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 우리 대학의 축제는 원래 총학생회가 주관하는데, 총학생회가 없는 지금은 이례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축제 준비위원회가 모여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모두가 힘든 시기였고 여전히 힘든 시기지만, 힘을 합쳐 축제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며 무한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터지는 팝콘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 물론 내가 속해있는 대의원회 역시 축제 준비를 많이 도울 것이니 말이다. 대의원회가 이 인터뷰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도와줄 거지?

지역사회

생활가구디자인학과와 함께하는 중랑구의 변화

보다 다채로워진 우리 동네의 이야기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전공심화 4학년에 재학 중인 정미희, 서보경, 한서윤 학생은 지난 7월 1일, 중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부터 '스스로 해결단' 단원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자문 위원으로는 학과의 조숙경 교수가 위촉되어 활동을 돕게 되었다.



▲ '스스로 해결단' 단원 임명장을 수여식

'스스로 해결단'은 중랑구에 거주하거나 중랑구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11명을 선정하였다. 활동의 주요 내용은 중랑구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앱 서비스로 상점을 알리기 위한 앱 운영 방법을 알려주며 지역 경제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강의를 참여하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4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지역 경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애로점을 청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스스로 해결에 나서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라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7월 21일, 생활가구디자인학과의 1, 2학년 학생 11명이 학생지원처에서 주관하는 지역연계 협력네트워크형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지역아동센터 외벽에 그림을 그렸다. 프로그램은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조숙경 교수의 지도하에 진행되었다. 빠른 장마의 도래로 본래 계획하던 일정보다 작업이 늦어지긴 했으나, 센터의 도움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벽화는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7월 13일, 흐린 하늘 아래 맑은 얼굴로 이루어진 해단식을 끝으로 본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던 센터의 외벽은 곤충을 채집하는 어린이들과 밤하늘을 나르는 피터팬이 그려지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오래된 벽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포토존으로 탈바꿈하였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의 호기심과 즐거움을 유발하는 벽화가 그려진 것이다.

생활가구디자인학과는 "서일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재능기부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연대를 강화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생활가구디자인학과를 홍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의 생활가구디자인학과와 함께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거듭해나갈 중랑구의 모습이 기대된다.

심은수 기자 simeunsu0826@gmail.com

서일소식

우리 대학 개교 47주년 기념식

우리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수여식



▲ 우리 대학 개교 47주년 기념식 단체 사진

우리 대학은 지난 6월, 개교 47주년을 맞이해 홍학관 다목적홀에서 개교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개교 47주년 기념식에는 교직원들에 대한 근속상 및 이사장상, 총장상, 스승의날 정부포상 등을 표창했다.

김영철 총장은 "우리 대학은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1세기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축사의 말을 올렸다. 또한 학교법인 세방학원 양근만 이사장직무대행은 "재학생 충원율 상승, 재정지원사업 적극 참여,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전공 개설, 공정한 평가시스템 마련 등 교직원과의 소통에 늘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30년 근속 표창은 교수 컴퓨터전자공학과 윤진섭, 레저스포츠학과 김해중,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박영화, 자산법률학과 임윤수, 학생지원처 주임 이경희 ▲20년 근속 표창 사무처 팀장 정유석 ▲10년 근속 표창은 교수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김영준, 산업경영학과 박승배, 정보통신공학과 김완태, 건설시스템공학과 김종우, 소프트웨어공학과 김현식, 비즈니스일본어과 심수경, 컴퓨터전자공학과 이창희, 산업경영학과 임웅석, 정보통신공학과 장대순, 레저스포츠학과 정수진, 컴퓨터전자공학과 채연식이 받았다.

또한 ▲이사장상은 교수 생명화학공학과 김경이, 간호학과 김정아, 기획조정처 계장 사지영 ▲총장상은 교수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민대진, 건축과 이원근,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조숙경, 중국어문화학과 유재성, AI융합콘텐츠학과 윤태복, 간호학과 이에리자 등이 받았다.

이어 ▲스승의날 정부포상으로 국무총리표창은 비즈니스일본어과 황규삼, 교육부 장관표창은 전기공학과 황현석이 받았다.

김도희 기자 rpt6ku@gmail.com

학과 STORY

세무회계학과

바른 인성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문 세무인 양성

우리 대학 인문계열 학과 중 하나인 세무회계학과는 바른 인성과 실무지식을 갖춘 전문 경영, 세무인 양성교육과 현장에 대한 적응력 및 실무 능력 함양을 위한 학과이다.



▲ 우리 대학 세무회계학과 홈페이지 소개 사진

사회현장에서 요구되는 회계 및 세무 분양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회계 보고서의 이해 및 문서 작성 능력과 세무신고 실무 능력을 갖춘 창의적 실무 전문가를 육성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술 및 전산회계, 전산세무, ERP 회계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산 프로그램의 운영 능력 배양과 봉사, 장인, 평등의식의 건전한 직업 윤리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인간관계 형성과 내면의 성찰을 기반으로 조직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하는 인격적 리더십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배양한다. 세무회계의 토대가 되는 경제학, 경영학 등 사회과학 기초 분야와 세무회계 관련법, 정보 및 통계, 외국어 등의 교과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 자질을 함양하고 있다. 더구나, 세무회계 업무의 정보처리 및 회계정보시스템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추구한다.

배움을 통해 세무회계, 기업회계, 전산세무, 전산회계, 회계 관리, 재경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세무 및 회계 전문가와 금융기관, 세무법인, 회계법인, 세무사무소 등의 세무회계 전문직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으로 취업할 수 있다.

세무회계학과는 졸업 후 2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에 편입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김진희 기자 rhdtka94@gmail.com

사 설

주인 잃은 학생 사회의 결과, 비대위

지난 5월 12일, 우리 대학은 제38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진행하였으나 최소 투표율에 미치지 못해 무산되었다. 그 영향으로 8월 3일 '애국서일 제1대 화양연화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를 대신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슬로건으로 내세운 '화양연화'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의미로 우리 대학의 청춘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앞선 7월 11일, 각 학과의 학회장에게 자원을 받아 5명으로 구성된 상태였던 비상대책위원회는 동아리 연합회와 주관하여 축제 준비위원회를 모집하는 등 학교의 앞날을 위해 자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짧은 기간일지라도 총학생회를 대신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많은 대학에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우리 대학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 총학생회를 대신하는 자치기구가 결성되었다고 한들 이는 우리의 손으로 뽑아 당선된 후보자들과 엄연히 다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곧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례를 토대로 더 많은 학생이 우리 대학이라는 사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교내의 일에 스스로 참여한다는 자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구축하고자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교내 환경을 만드는 길이다.

지금이라도 학교를 그저 공부하기 위한 곳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사회라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비록 대학이 긴 인생에서 거쳐 가는 짧은 시기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회인으로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점을 찾아보는 것이 성장의 발돋움이 될 것이다. 총학생회를 대신하여 학생 사회를 지키기 위해 나선 우리 대학의 비상대책위원회에게 많은 응원 바란다.

교수칼럼

자유,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생활가구디자인학과 조숙경 교수



고양이가 날카로운 이빨로 내 발을 살짝 문다. '아야'하고는 몸을 뒤척이면서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금 지나면 '땡이'라는 말티즈 애견이 내 베개에 머리를 눕히고는 귀에 대고 '시익 식' 거친 호흡을 해댄다. 새벽 5시만 되면 고양이와 개가 한 편을 먹고 나를 공격하는데, 목적은 딱 하나 '아침밥'이다. 시계가 필요 없다. 두 마리의 아침을 챙기고 나면 다른 가족은 꿈나라를 헤매는 중이라 혼자 식사하는데, 심심하지 말라고 고양이와 개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내 식사를 관람한다. 아침마다 하는 준비가 끝나면, 나갈 채비를 한다. 이때 고양이가 놀고 싶어 바지를 물어 당기면서 장난을 친다. 발로 고양이 배를 살살 문질러 주면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는 졸졸 따라다닌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또 한 번 밥을 준다.

퇴근하여 현관문을 열면 두 마리가 사이좋게 나를 반긴다. 저녁을 달라는 것이다. 가족에게서 저녁을 얻어먹고도 안 먹은 것처럼 응석을 부리기 때문에 저녁을 주기 전에 이미 먹었는지 꼭 확인한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취침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한 번 더하고, 잠들면 일과가 끝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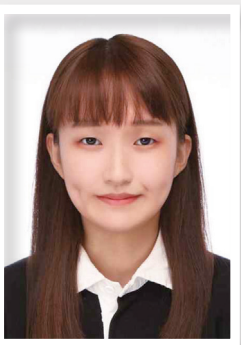
고양이와 땡이의 삶을 내 관점에서 보면 매일 똑같다. 마찬가지로 내 삶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보면 거의 매일 같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달인이 되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므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매일 같은 일을 하다 죽는다면 후회할 것 같다. 안 먹어본 것을 먹고, 매일 가던 길 말고 다른 길도 가보고, 안 해본 일도 해보고,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도 해보면 좋겠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8월 1일부터 1년간 연구년에 들어가 강의를 중단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껏 못했던 것을 중심으로 전과 다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위해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 새로움이 여러분의 청춘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학생칼럼

일방통행의 교차로

미디어출판학과 2학년 이하제



사람들의 취미는 각양각색이다. 운동, 영화 감상, 독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

나는 주말마다 인디 밴드 공연을 보러 다닌다. 평소 어떤 일을 하면 꼭 음악을 틀어놓는데, 새로운 곡을 직접 찾으면서 다양한 장르, 공연 등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다. '믹스처 록'에 관심이 생긴 재작년에는 마침 한국에서 이 장르를 하는 팀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매주 들르는 마포구 일대 라이브하우스에 처음 발걸음한 것도 이때였다.

공연자는 대부분 다른 생업을 두고 취미로써 음악을 한다. 투자자의 입김이나 시장 동향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단 같은 이유로 공연 수익은 불안정한 데다 그마저 푼돈이기 일쑤다. 그런데도 활동을 이어 나가는 원동력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뿐이다. 관객 또한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공연, 많은 밴드를 접해도 특히 취향에 맞는 쪽을 응원하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관계성이 일방적이라고 생각했다. 공연자와 관객 사이인 우리는 철학과 감상을 나누지만, 공연장을 벗어난 만남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내 생각도 바뀌었다. 무대 위아래로부터 그 일방적인 마음들이 모여 통하는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좋을 대로 노랫말을 지어 부르고 듣고 해석한다. 이 모든 과정의 이름은 소통이다. 비록 가끔 오해를 빚기는 해도, 나는 언젠가 정든 라이브하우스를 떠나 새로운 취미를, 일을 찾겠지만 이곳에서 배운 추억은 서로 통했던 마음에 새겨져 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서일만평

서서히 되찾는 일상

그림 지현



사회문화

거리두기 해제 후 영화관

서비스와 안전, 둘 다 문제



▲ 상영관 내 취식이 가능해진 영화관

지난 4월 18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은 작년 대비 100만 명이 늘었다. 하지만 영화관은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다.

CJ CGV는 영화상영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환사채(CB)를 4,000억 원을 발행했다고 한다. 영화 배급사에 2,400억 원을 지급하고, 1,6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모두 예매 값을 올렸다.

영화관 직원들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영화관 직원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영화관 1관 당 직원이 6~7명이 있었고, 아르바이트생도 20~5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3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화재 및 안전 문제가 터져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영화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직원이 없어서 소방관이 올 때까지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관람객들의 증언을 통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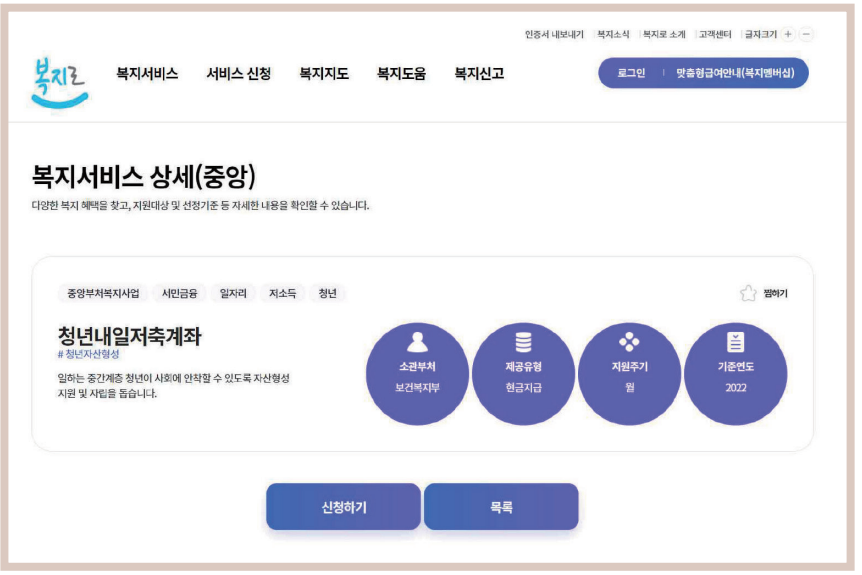
영화관 직원들은 단순히 예매표 값과 음식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직이 아니라 관람객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직원 보충을 하지 않는다면 OTT 서비스가 활발한 이 시점에서 영화관은 더더욱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허승주 기자 rosaho1016@gmail.com

경 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든든한 사회생활 시작을 위한 첫 준비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화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를 준비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출시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금액은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며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월 본인 적립액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 청년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이다. 유지 조건으로는 가입 후 2년간 근로 및 사업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10시간의 교육 이수 등이 있다. 4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시에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유지되며 만기 시 지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진희 기자 rhdtka9@gmail.com



특집 1

학생과의 교류의 장, 잔디마당 행사

지난 코시국 스트레스를 달래주려는 우리 대학의 노력



▲ '오늘은 서일대 직원이 쏜다' 행사



▲ 서일잔디마당소통day 행사

지난 학기 우리대학 잔디마당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었다. 4월 18일 서일학생사랑캠페인으로 '오늘은 총장이 커피 쏜다' 행사가 진행되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학생식당 앞 푸드트럭에서 진행되었다. 선착순 200명에게 커피 150잔과 아이스티 50잔이 제공되었으며 '총장님을 이겨라'는 가위바위보로 총장을 이긴 학생 30명에게 조각 케이크를 증정했다.

6월 9일, 우리대학은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일대학교 지부 창립 22주년 및 제12기 출범을 기념하여 직원노동조합에서 커피차 행사를 진행하였다.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서일대 잔디마당에서 아이스아메리카노와 복숭아 아이스티를 합쳐 약 400잔 정도의 음료를 준비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과 코로나 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만끽하지 못했을 학생들에게 작은 추억이 되고, 또 시원한 커피 한잔으로 더위를 날리고 또 힘내서 기말고사도 잘 보기를 바라며 기획되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일대학교 지부 12기 지부장이자 우리 대학 가경운 구매관재팀장은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며 이야기하고 일을 하면 힘도 나고 더욱 보람을 느끼는데 최근 몇 년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대면 행사가 어려워 그동안 학생들을 마주할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쉬웠다"라며 "그런데 이렇게 학생들이 활기차게 오고 가는 캠퍼스를 보고, 학생들과 마주하니 감회가 새롭고 기뻤다"라고 전했다. 또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언제, 어디서 진행을 해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혹시라도 학생들이 오지 않아 준비한 커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어서 학과 조교님들과 SNS 등으로 홍보를 했는데 다행히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준비한 수량이 1시간 정도에 다 소진되어 감사했다. 날씨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쳐서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 학생들의 기말고사 응원을 위해 이번 커피차 행사를 진행했다. 학생들에게도 이 마음이 전해졌길 바란다.

지난 6월 13일 학생지원처 주관하에 서일잔디마당소통day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교원 간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기말고사에 지쳐있을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잔디마당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피자와 치킨이 제공되었다. 사전에 29개 학과별로 최대 6명씩 신청을 받아서 11시 40분부터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소통day 행사에는 총 15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학생들은 행사장에 준비된 게시판에 학교를 칭찬하는 메모를 남겼다.

행사에 참여한 유아교육과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보다 완화된 후에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 처음이라서 색다르고 학과 친구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가져서 즐겁다"라고 밝혔다.

김다연 기자 dydh0131@gmail.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학내언론

서일학보에서는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서일대 학보사
연락처: 02-490-7567

서일학보 디자인 및 인쇄: 진영DPI (T. 02-2263-3388)

특집 2

차별 없는 세상, 존중받을 권리

대학생들을 위한 방학 활동 추천



▲ 우리 대학 인권센터장 임윤수

우리 대학의 인권센터는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로 모든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되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서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대학 성평등 및 인권보호 제고를 위한 교육, 연구, 자문, 학교 및 유관 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건전한 대학 문화조성과 평등한 사회구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성폭력이란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은 물론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이러한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조사하여 예방하기를 권고하고, 인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며,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인권의식의 성장을 돕는 업무를 하고 있다. 앞으로 인권센터는 우리 대학 구성원들을 위한 소통의 공간으로써, 항상 모든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한다.

장해언 기자 haeeon0416@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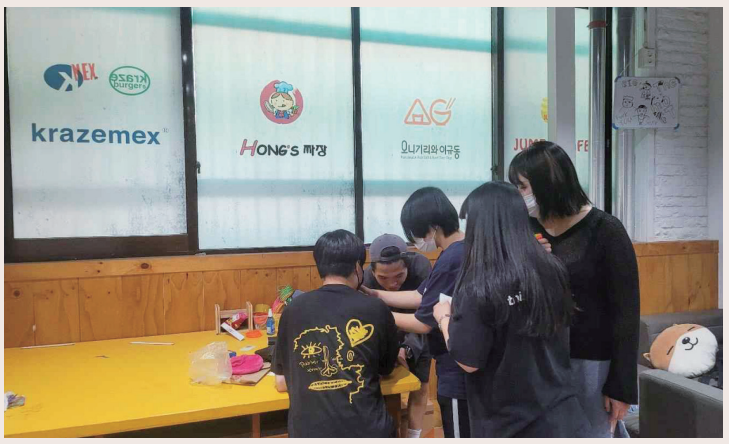
인터뷰 1

힙합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힙합동아리 'THE MOST'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모스트 9기 회장인 세무회계학과 20학번 25살 박지환입니다.



▲ 힙합동아리 'THE MOST'

더모스트가 해온 활동들과 앞으로 진행할 활동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길거리 버스킹, 대관공연, 지역사회 협조 공연 등 저희가 직접 공연을 잡을 때도 있었고, 학교로 섭외가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공연뿐만이 아닌 회식, MT 등 친목 도모 활동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뮤직비디오 촬영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음악 장르 중 '힙합/R&B' 동아리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은 힙합이 전보다 대중들에게 친근해진 음악이라고는 하지만, 더모스트 1기 때까지만 해도 힙합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힙합도 재미있고 좋은 음악이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이유로 동아리가 개설됐습니다.

더모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을 알려주세요.

팀원들끼리 단합이 잘됩니다. 랩/보컬/스텝으로 구성되어있는 부원들 모두 행사나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모스트는 전문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같은 취미를 가진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미흡한 점도 있을 테고 완벽한 무대를 꾸미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학우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고 앞으로 있을 행사에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해언 기자 haeeon0416@gmail.com

인터뷰 2

우리 대학의 유일무이한 밴드동아리

밴드동아리, '막내동이'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막내동이 38기 회장을 맡은 홍민혜입니다.


▲ 밴드동아리 '막내동이'

막내동이가 해온 활동들과 앞으로 진행할 활동들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여있기 힘든 상황이었기에 공연은 즐기지 못했습니다. 학교 축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전영호 님의 'butter-fly'라는 곡을 선정하여 축제를 즐겼습니다. 정기공연을 했을 때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한 사람당 4~5곡 정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제한도 많이 풀려서 선배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축제와 정기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나 곡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합주나 공연 등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쉬워 이번 축제나 정기 공연에 참여해 추억을 쌓으려고 합니다. 선배님들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 속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가 되었고, 당시 분위기는 콘서트장 같아 즐거웠다고 합니다.

막내동이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학생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는 학생과 조금이라도 칠 줄 아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막내동이는 음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로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0월에 열릴 축제에 막내동이가 올라가는데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지예 기자 alsrn896328@gmail.com